

인권정보자료실
CPd.a.9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삶 · 권력 · 죽음 展

행사일시

1999년 12월 10일 저녁6시 가마골 소극장
사형제 폐지 연화 특별사사회(12·11 저녁7시 부산 서네마테크)
1999년 12월 10일~15일(7일간) 대안공간<섬>

주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예술가들의 모임

함께하는 사람들

- 미술 : 김학재 문병락 김현식 김원태 황철식 김민경
 실종보 방정아 박찬권 (큐레이터-이영준)
- 시사만화 : 박종무 안기태 김정위 노인호 이윤미
- 무용 : 박경향
- 사진 : 김홍의 김정일
- 퍼포먼스 : 퍼포먼스 파크 영위예술 그룹
- 영화 : 사형제 폐지 - 국제영화제스티 인권영화상영
- 기획 : 김창수 박종호

인권정보자료실
CPd.a.9



행사기간 12.10~16(7일간)

매일 대안공간 <삼>에서 사형제 영화상영

<국제 엠네스티 인권영화>

- When the state kills
- The next step
- 세계인권선언 애니메이션

축사



우리의 바람

문장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사형폐지위원장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공동회장

2000년을 앞둔 12월 초순.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 사형폐지운동에 뜻을 같이한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여 『삶, 권력, 죽음』이라는 주제하에 각종 전시회 등 뜻있는 행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추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학자들간에 찬반 논의가 있어 왔고 사형폐지 몇 단체들이 조직되어 사형폐지 반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 국민 대중운동으로는 역부족인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뜻을 같이한 예술인들이 사형폐지를 위한 행사를 갖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여러 단체들과 사형폐지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형폐지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역사에 남을만한 참으로 귀한 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극형으로써 그 방법이 얼마나 잔역하였으며 오판과 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어 갔습니까.

20세기부터 확산된 사형폐지운동으로 지금 세계는 10년이상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까지 합하면 106개국이 사형폐지국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고 89개국이 존치국으로 매년감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여는 2000년에는 전세계에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생명존중의 해가 되도록 우리 힘을 합하여 매진 합시다. 그리하여 이땅에 사형없는 생명의 결실을 맺읍시다.



검증되지 않은 미개한 전통, 사형제도



오 완 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사형은 차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 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살인행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역사에서 폭력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형제도를 열성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당하게 죽을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여타의 다른 인권들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국가들과 종종 일치한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인권을 위한 투쟁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폭정을 몰아낸 나라들에게 교수대와 총살대가 사라지는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예들 또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와 사형이 폐지된 사회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중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 라는 답에 더 가까워지도 있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세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이상인 105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0개 국가에서 사형은 존치되고 있다.

형벌의 불평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경우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범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 피부색, 또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난하거나 정신 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모든 사형의 80%는 흑인들에게 폭력으로 즉결 처형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텍사스주에서 집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디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에게 인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사형은 한국에서도 명백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1958년의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양명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1967년의 동백림 사건, 1974년의 인혁당사건, 1980년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형선고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은 세계에서 군사쿠데타 이후 이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소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 있는 죽음이 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이제 국가가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없음에 관해 대중적 이해만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형없는 세상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류가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행사를 개최하며...



예술행위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인간은 예술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예술 표현의 주체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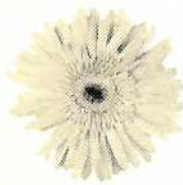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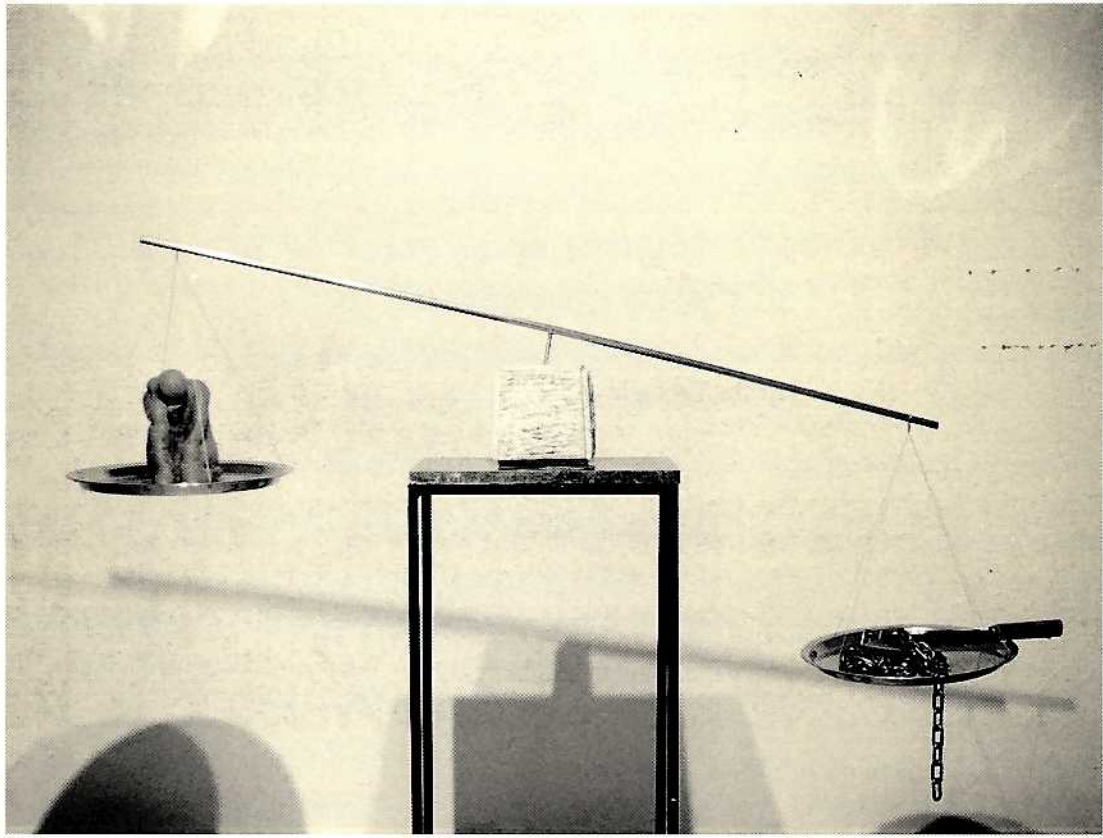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사형제 폐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며 또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죽음·삶·권력 전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인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부산의 예술가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작업은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잘못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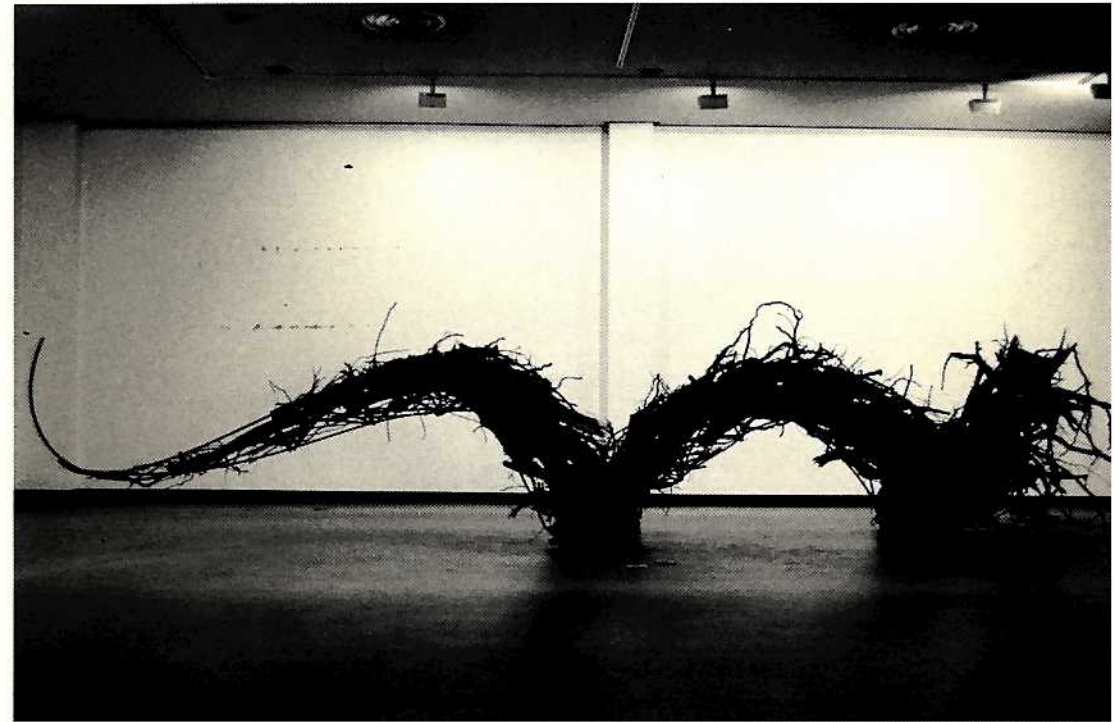
김 청 수(부산MBC문화방송 프로듀서)
박 종 호(부산예술문화대학 영화영상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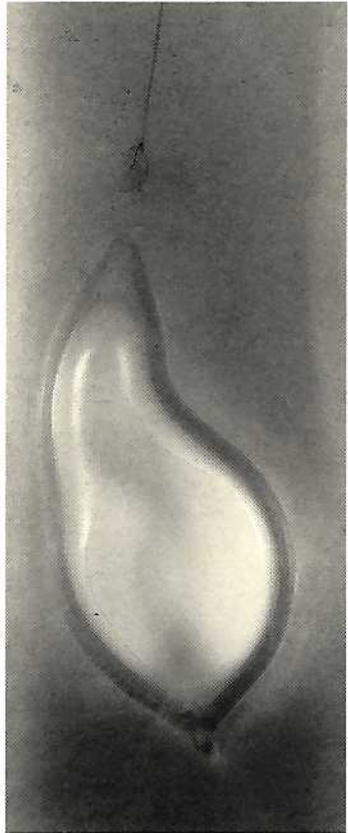
생명-무제

김 학 제



부러진 것

문 영 탁



지고

■ 김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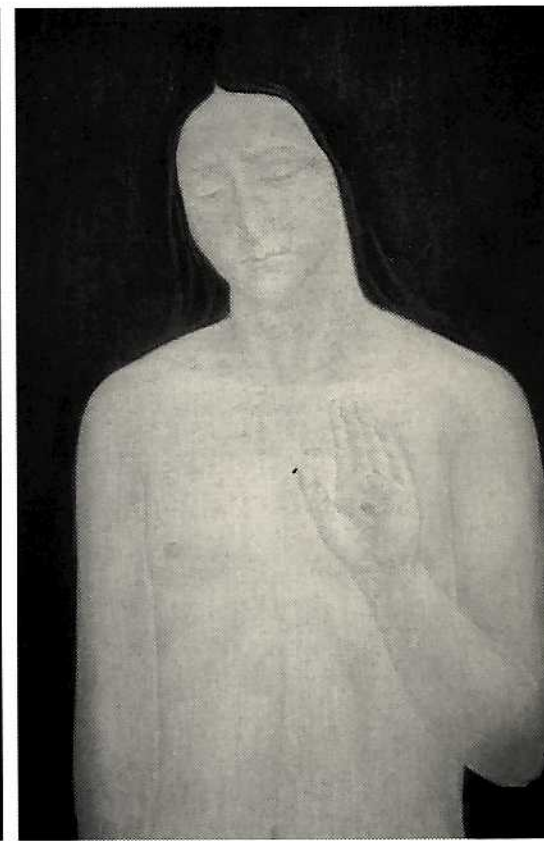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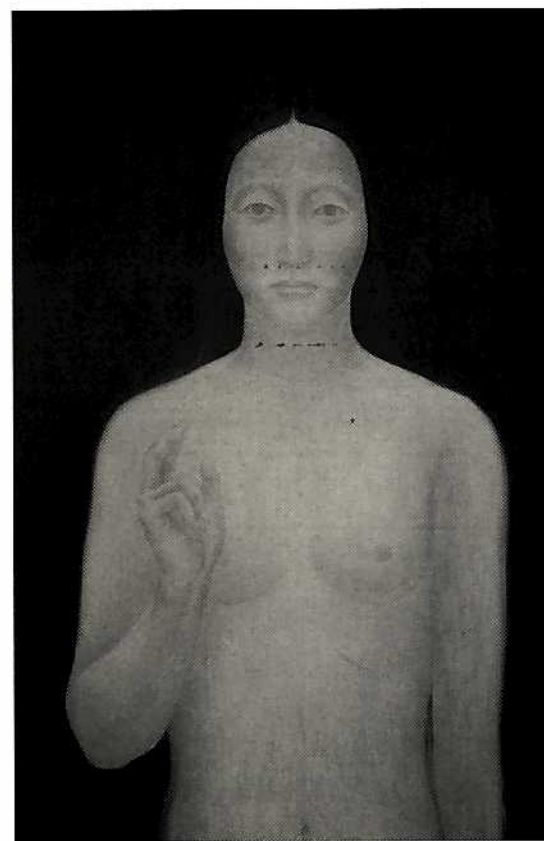
무제

■ 김원태



그를 위한 그림비

■ 황철식



마리아와 그리스도

■ 감민경



학장동의 일상-안과 밖

■ 실증보



가혹한 응징 그리고 무관심

■ 방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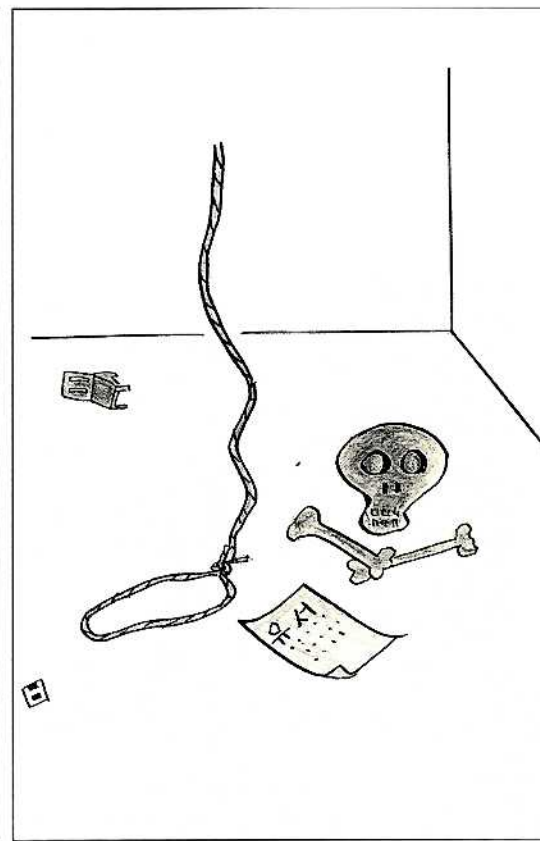


무제

▮ 박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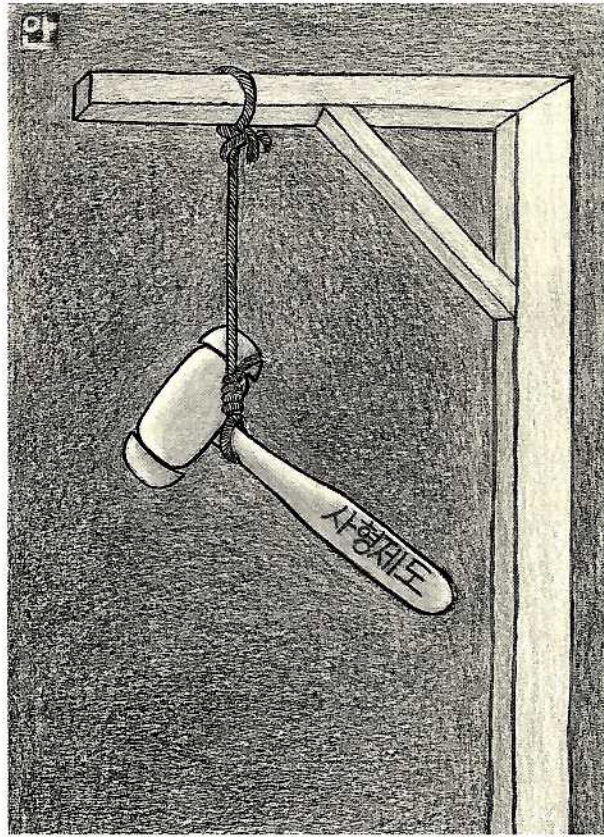
自由의 갈망



우리는 같은 물에 손을 담글 수 없다

▮ 박등무

- 중요무형문화재 62호 좌수영 어방놀이 예능보유자
- 91 동국불교신문 만화담당
- 93 부산항도신문 만화, 만평, 연재
- 93 THE LOOK誌 만평연재, 제1회 풍자만화 5인전 개최(영광도서)
- 98 해운대구보 만평연재, 1998 제2회 풍자만화전개최(현대백화점)
- 99 부산시립미술관주최 「만화로 그리는 詩, 詩로 쓰는 만화」카툰 기획전
- 현/99 수영구보 만화 연재, 93-99 부산카툰클럽 창립 및 회장역임 중



사형제도를 사형



소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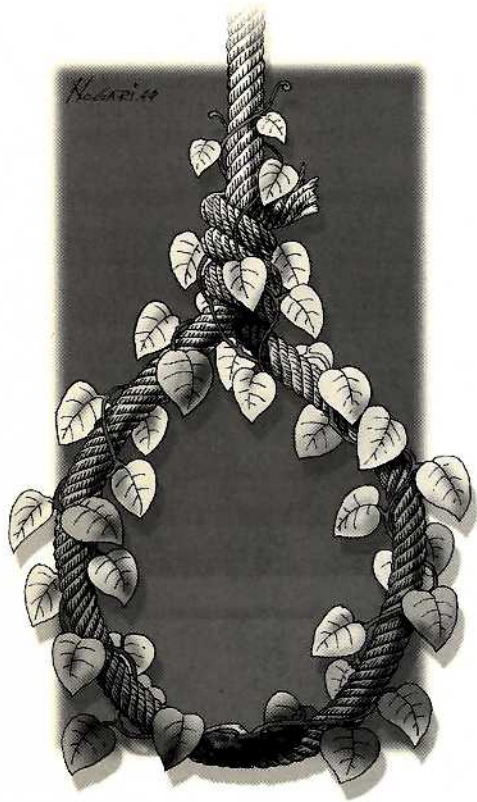
■ 안 기 태

- 73 국제신문사 만화, 만평담당
- 79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
- 80 부산일보사 만화만평담당
- 96~98 경북대동일보사 만화만평담당
- 98 봉생문화상연론 출판부문수상
- 97 「피라미션생」만화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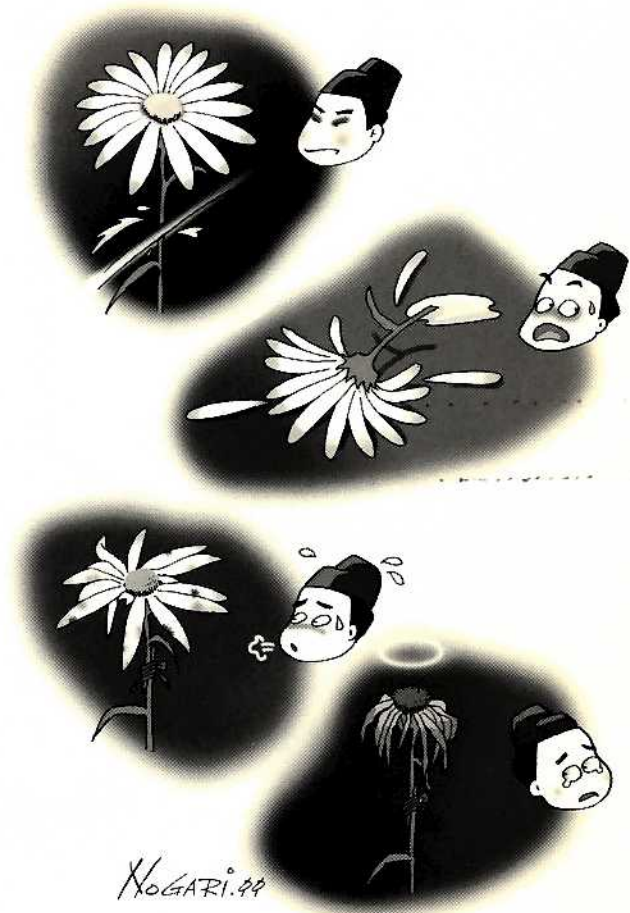
- 99 국제신문만화연재 8,000회
- 99 부산시립미술관주최 「만화로 그리는 詩, 詩로 쓰는 만화」카툰 기획전
- 현/국제신문사 국장대우 편집위원
- 한국시사만화가 부회장
- 영남언론미술기자회 회장
- 부산카툰클럽 고문
- 부산예술문화대학겸임교수

■ 김 정 휘

- 사하구구보 만화, 만평 연재
- 일간 지 및 잡지사에 작품기고 중
- 국민일보공모전
- 1998 제2회 풍자만화전 개최
- 99 부산시립미술관주최 「만화로 그리는 詩, 詩로 쓰는 만화」카툰 기획전
- 부산카툰클럽 회원
- 프리랜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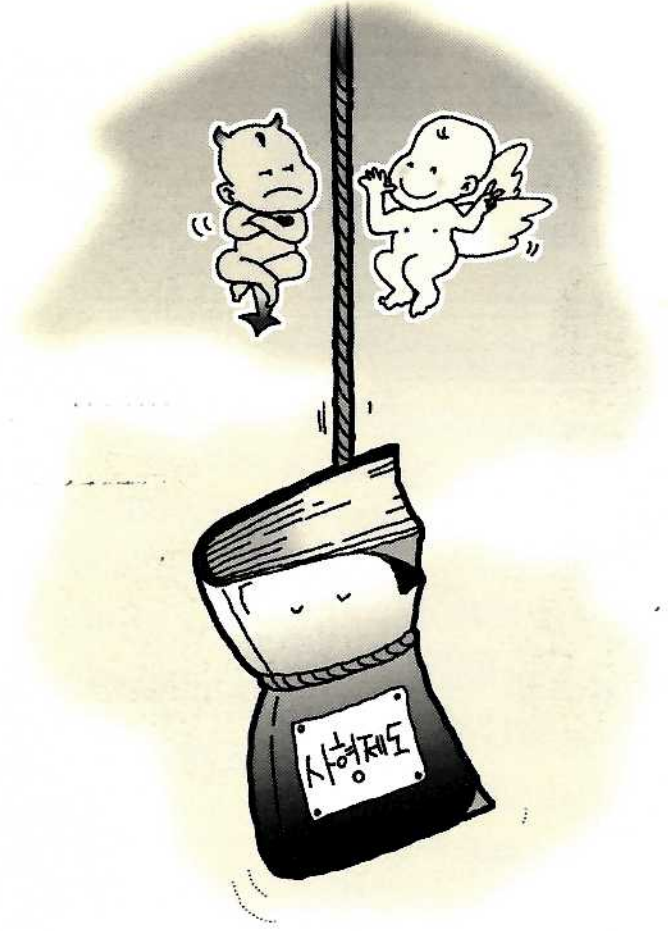
유물



되돌릴...

■ 노인호

- 동아대예술대학 산업미술과 졸업
- 동아 산업디자인회 회원
- 영남 미술기자회 회원
- 부산 카툰클럽 회원
- 99 부산시립미술관주최 「만화로 그리는 詩, 詩로 쓰는 만화」카툰 기획전
- 현/부산일보사 편집국 근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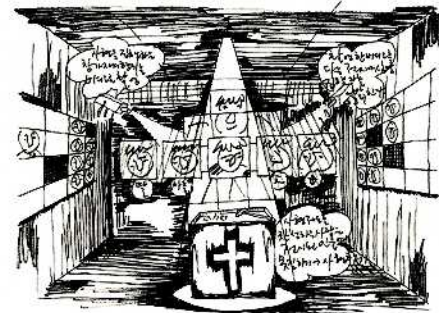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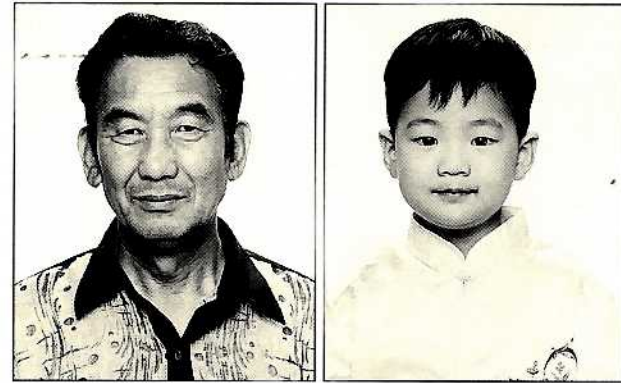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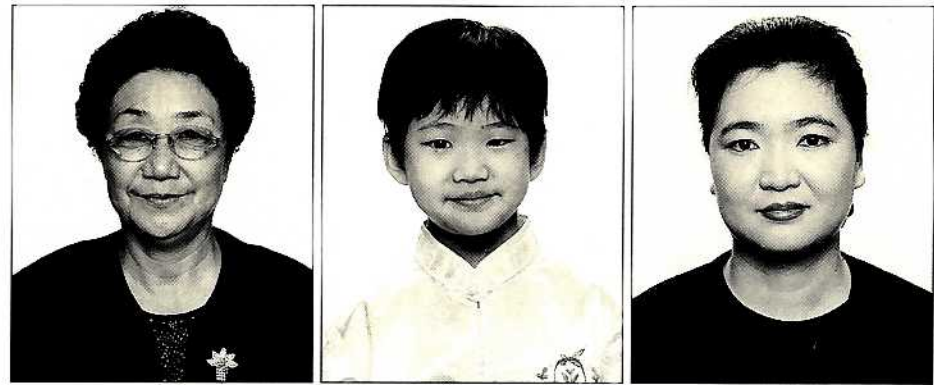
■ 이윤미

-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 졸업
- 영남미술기자회 회원
- 99 부산시립미술관주최 「만화로 그리는 詩, 詩로 쓰는 만화」카툰 기획전
- 현/부산일보사 편집국 편집미술부 근무



위 사진은 Twin Palms Publishers에서 출간된 The killing Fields에서 복사된 것입니다.

김정일 • 사진작가
• 사진갤러리 051



김홍희 • 사진작가
• 사진갤러리 051 대표



사형수 없는 세상을 위하여



*영혼풀이-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으로 떠돌아다니는 망치의 혼과 넋을 달래며 액을 풀어 천도시키는 염원 의식무이다.

- *작품내용 **1장** 원점의 시작-새 생명 잉태의 존엄성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어 어떤 등불 삶으로 이어질까?
- 2장** 혼 불-죄와 벌의 잘못된 의미와 죽음 또하나의 살인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넋들임.
- 3장** 천 도-죽음 또다른 죽음앞에 떠도는 영혼의 넋을 달래어 천도함.

출연 : 박경량(전주대사습장원자/대통령상수상자)
박경량 우리춤 연구회 회원 여러분

- 박 경 량
 - 93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대상
 - 93 대구국악제 대상
 - 94 개천한국무용제 특장부 대상
 - 95 전국대사습놀이 무용부 장원
 - 97 서울 전통공연예술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현/박경량 우리춤 연구회 대표
- 박경량 우리춤 전수소 대표
- 박경량 전통무용예술단 대표
- 리라 무용 학원 원장



진鎮 · 혼魂 · 무舞

1999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대안공간 섬



사형이라는 형벌은 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처벌이다. 정치범이 아니더라도 원한이든 순간적인 실수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상상하기 힘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 뉘우치고 집행을 위시하여 죄 짓지 말도록 겁주는데 별 신통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오관의 가능성과 함께 죄에 대한 깊은 참회의 시간을 죽이는 일일뿐이다. 사람을 죽였다고 죽인자를 국가의 제도로 다시 죽인다는 것은 보복형의 또 하나의 살인이다. 너무나 감정적인 처사가 아닌가.

해방과 6.25, 유신, 그리고 기나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양심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들이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장으로 끌려갔다. 또한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을 한칼로 재단할 수 있었던 매우 비도덕적인 권력의 힘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죽음들에 대해서도 애도해야한다.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사형제도를 돌아보는 일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앞선다.

Performance PARK의 이번 공연은 한반도의 현대사라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혼무이다.

Performance PARK 구성
안무 양윤선 연출 허승민 예술감독 김원태
미술 황경호 진행 윤지은 의상 김희진